

# KINU Insight

2019  
No.7

##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KINU Insight 19-07

#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차 례

I. 신한반도체제의 배경 .....	1
1. 탈냉전 세계질서 재편 .....	1
2. 초연결(hyper-connected)시대 사람 중심 환경 도래 .....	2
3. 한국의 국력 신장과 외교·안보 자율성 증대 .....	3
4. 북한의 전략적 선택 .....	3
II. 신한반도체제의 의의 .....	5
1. 동아시아 패러독스(East Asian Paradox)와 생활세계(Lebenswelt)의 위기 .....	5
2. 신한반도체제의 의의 .....	8
III. 신한반도체제의 개념 .....	11
1. 비전 .....	11
2. 목표 .....	11
3. 원칙 .....	12
IV. 신한반도체제의 추진 구도와 로드맵 .....	14
1. 추진 구도 .....	14
2. 로드맵 .....	15
V. 정책적 고려사항 .....	17



## I 신한반도체제의 배경

### 1. 탈냉전 세계질서 재편

- 냉전체제 해체 이후 세계 질서의 구조적 재편과정이 진행됨.
  - 공산권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 NATO의 확대 등 동서 양 진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적 안보동맹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안보질서의 형성이 진행
  - 미·소 양강체제에서 구심점이 불분명한 다극화 추세로 안보질서가 변화
  - 소련의 해체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쇠퇴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국제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는 국제주의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고립주의가 경합
- 분쟁에 대한 국제적 조정 메커니즘이 한계를 노정하는 가운데, 국제질서의 무정부주의화 경향이 심화됨.
  - 중동 지역의 무력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습 등 지구촌 차원의 파장이 확산
  - 동, 남중국해 도서 분쟁 등으로 아시아 역내 군비경쟁 및 지역적 무력 충돌 가능성 증대
- 각국이 자국 중심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함.
  - WTO 등 국제기구의 영향력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반 이민정책 등 자유무역·시장경제 질서의 위협요인 증대
- 각국 국내정치의 우경화 경향과 아울러 스트롱 맨(strong man)의 시대가 도래함.
  - 주요 국가 국내정치의 자국 중심주의 및 자민족 중심주의 우경화 경향 증대
  -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등 포퓰리스트 및 강경파 지도자들이 부상

- 신 냉전 경쟁체제 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
  -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도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중 패권경쟁 구도가 형성
  - 미·일 중심 해양세력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러 대륙세력의 전략적 연대가 상호 충돌하는 경향
  -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 등 미·중·러를 중심으로 새로운 핵무기 경쟁체제가 형성
  - 동·남중국해 영토분쟁 및 지역 차원 분쟁의 증가로 재래식 군비 경쟁이 가속화
  
- 탈냉전 세계질서의 복합적인 재편과정은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안보 및 대북·통일정책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요인으로 작용, 창의적인 대응이 요구됨.

## 2. 초연결(hyper-connected)시대의 사람 중심의 환경이 도래함.

- ICT 기술 발달과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환경 도래함.
  - 전 세계 개개인 간 동시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초국경·초국가 협력이 확대되는 경향
  - 한국의 촛불 혁명, 중동의 재스민 혁명, 홍콩의 우산혁명 등 시민혁명과 각 국내 다양한 정치적 변화가 ICT를 통한 개개인 간 의사소통에 의해 추동
  
-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나타남.
  - 개개인의 행복에 중점을 두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희구 증가
  - 친환경 발전, 균형 발전, 포용적 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
  
- AI 시대의 인간 소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구조를 넘어 새로운 변화의 주체로서 사람과 개인의 영향력 및 중요성이 증대됨.



- 초연결시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3. 한국의 국력 신장과 외교·안보 자율성 증대

- 한국의 발전과 국가적 위상의 제고로 외교·안보적 능동성이 확대됨.
  - 과거 저발전 상태의 한국은 근대 및 냉전기 한반도·동아시아 질서에 수동적으로 재편
  -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외교·안보적 능동성의 확대는 새로운 질서재편의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
-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국력 신장을 달성, 정치·경제·사회·국제적 차원의 능동적 역량이 강화됨.
  - 한반도·동아시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
- 한국은 한반도·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견인’과 ‘수동적 편입’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에 직면함.
  - 문재인 정부는 평화·번영의 한반도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견인하고 평화·번영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추구
- 한반도·동아시아 질서에 수동적으로 재편되었던 과거를 성찰하고 한국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됨.

### 4. 북한의 전략적 선택

-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등장 이후 북한은 시장경제 확대 및 경제개발구 지정 등 경제 개혁과 개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함.
  - 2018년 경제·핵병진노선의 결속(종료)을 선언하고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을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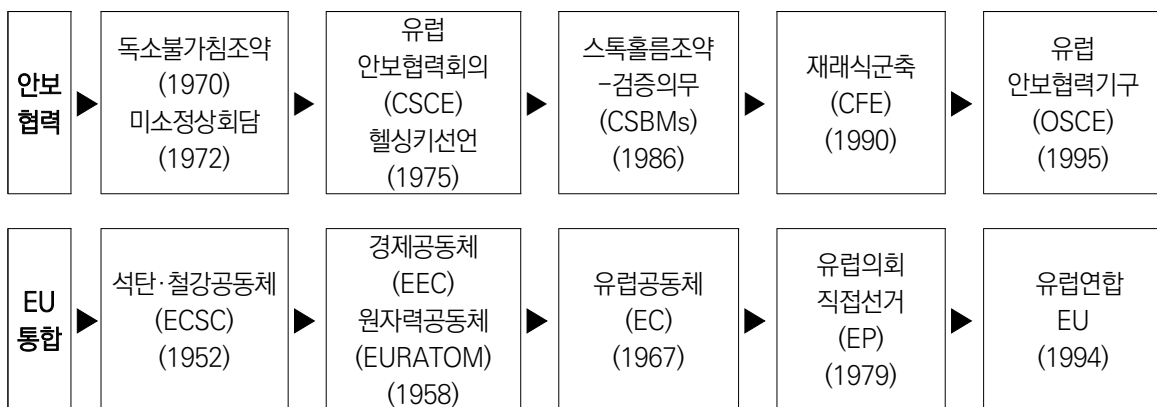
-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명문화함으로써 시장경제 요소를 제도화
- 2018년 3월 이후 김 위원장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쿠바와 15회의 정상회담을 연속 개최, 이는 새로운 변화의 모색 과정으로 볼 소지가 있음.
-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는 한국전쟁 종전, 북한체제 보장, 북미 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세계경제 편입 등 상응조치를 수반하게 됨으로써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연계됨.
- 북한의 경제중시 전략 관철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면 난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능함.
-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II 신한반도체제의 의의

### 1. 동아시아 패러독스(East Asian Paradox)와 생활세계(Lebenswelt)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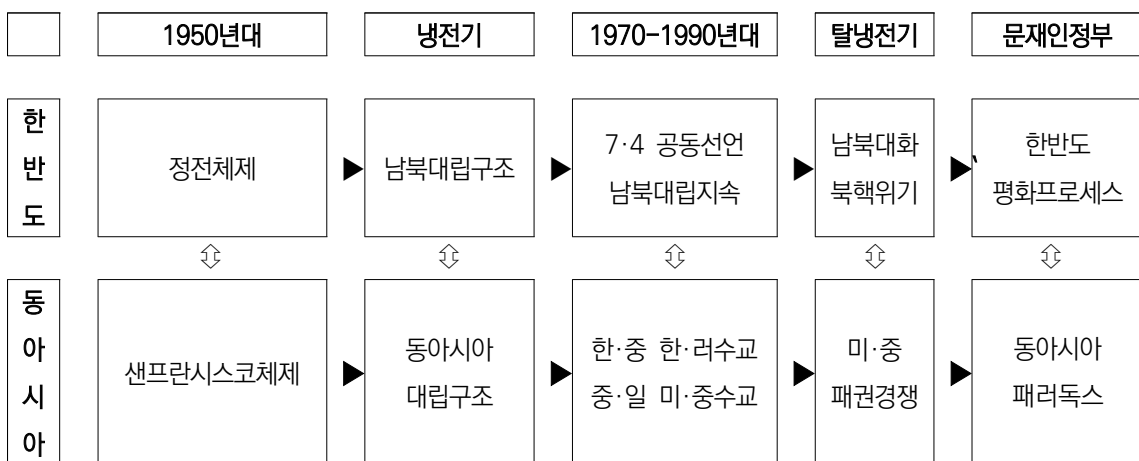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연합국 간 협의를 통해서 비교적 원만한 전후 처리와 아울러 전후 질서를 형성함.
  - 유럽은 전후 질서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신뢰형성을 통해 큰 틀에서 통합을 지향하는 협력적 프로세스를 진행
- 냉전기 유럽의 동서 양 진영은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유럽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함으로써 다자 안보협력의 성과를 도출함.
  - 냉전 해체 이후 슬라브 계열 구 소련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NATO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가장 규모가 큰 집단안보체제를 형성
-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은 석탄·철강 공동체를 시발점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정치협력을 도모함.
  - 유럽 각국은 탈냉전과 더불어 협력을 가속화해 높은 수준의 다자 정치·경제공동체인 유럽연합(EU)의 창설에 성공, 공동 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통 화폐를 사용

〈유럽 신뢰구축과 통합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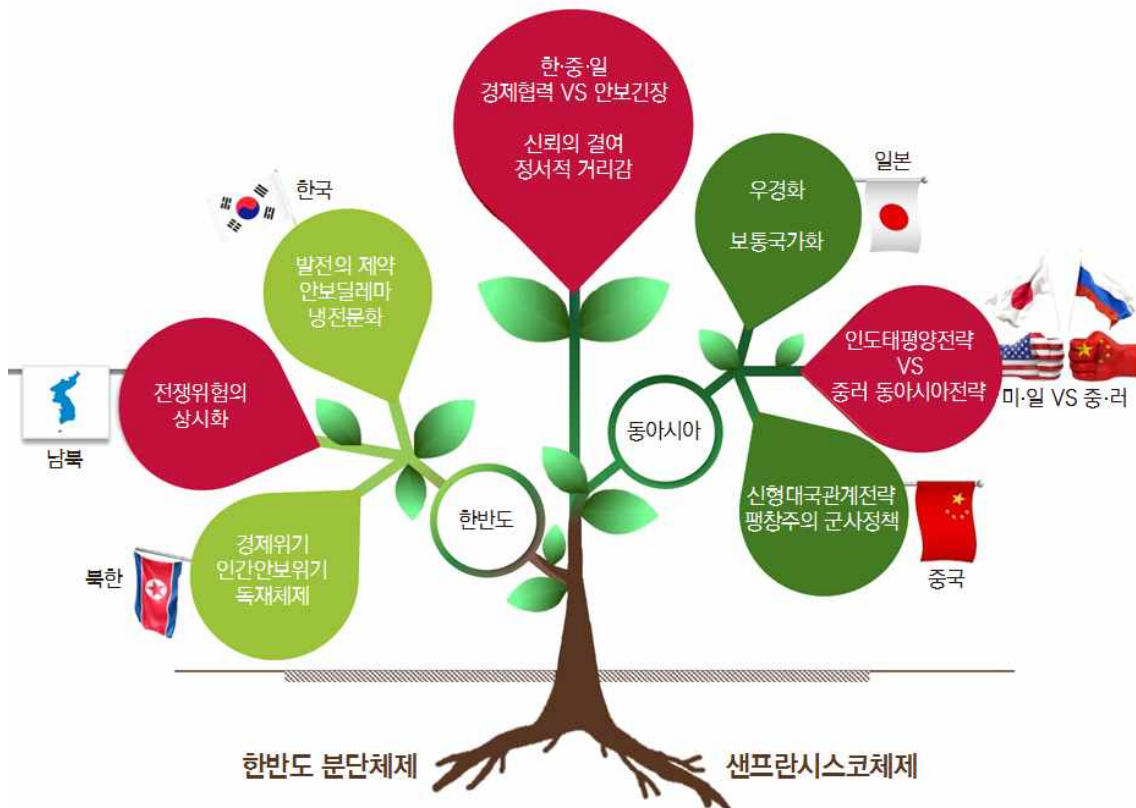
- 경제통합과 외교·안보적 신뢰구축을 진전시킨 유럽과 달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동아시아 패러독스의 모순된 상황에 직면함.
-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이 미완으로 종식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불안정한 전후 질서를 형성함.
  - 중국의 공산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패전국 일본을 동맹국으로 전환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일제 식민지배체제와 태평양 전쟁의 완전한 청산기회를 상실, 역내 영토 및 과거사 등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
  - 한국전쟁은 불안정한 정전체제로 귀결됨으로써 장기지속형 한반도 분단구조를 형성, 남북한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제약
- 냉전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체제와 한반도 분단체제는 관성을 유지, 새로운 형태의 안보적 대립구도로 재생산되고 있음.
  - 과거의 냉전적 대립구도가 미·중 패권경쟁 및 동아시아의 신 안보대립구도로 전이되는 경향 발생
  - 동아시아의 신 안보대립구도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

〈한반도·동아시아 질서 변천 과정〉



- 한반도·동아시아는 상호 긴밀한 경제협력과 아울러 안보적 긴장이 병존하는 동아시아 패러독스로 인한 고비용구조에 직면함.
  - 한·중·일 3국은 동일한 유교문화권이라는 공통성을 기반으로 사실상 일일생활권 및 경제적 의존관계를 형성
  - 북핵 위기, 미·중 패권경쟁 구도, 신뢰의 결여 등으로 동아시아 각국 간 갈등구조가 내재
  -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중·일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동아시아 패러독스의 현실
  
- 동아시아 패러독스는 각국 간, 각국 내의 고비용구조로 재생산
  - 역내 생활세계의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

〈한반도·동아시아 생활세계(Lebenswelt)의 위기 tree 구조〉



## 2. 신한반도체제의 의의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 북한의 전략적 변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협상 전략에 따라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함.
-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시발점으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천명함.
  -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비핵·평화체제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하나의 한반도를 지향
  - 신한반도체제는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의 선순환구조를 통해 동아시아 패러독스를 구조적으로 해체, 평화·번영의 한반도·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비전과 역사관에 해당

### 〈신한반도체제 관련 주요 담론〉

주요 개념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li> <li>• 평화협력공동체·경제협력공동체</li> <li>• 평화경제</li> <li>• 혁신적 포용국가</li> <li>• 사람 중심의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번영 공동체</li> </ul>	100주년 3·1절 문 대통령 기념사 (201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범함의 위대함</li> <li>• 일상의 평화</li> <li>• 포용적 세계질서</li> </ul>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문 대통령 기고문(20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을 위한 평화</li> <li>•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li> <li>•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li> </ul>	오슬로 포럼 문 대통령 기조연설 (2019.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li> <li>•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li> <li>•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li> </ul>	74주년 광복절 문 대통령 경축사 (2019.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li> <li>•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li> <li>• 한반도, 동아시아, 아시아 전체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li> </ul>	74차 유엔총회 문 대통령 기조연설 (2019.9.24.)

- 신한반도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평화·번영의 한반도·동아시아 공동체를 의미함.
  - 비핵·평화체제 구축 및 분단체제의 극복을 통해 형성된 평화·번영의 한반도 공동체
  - 국가 간 갈등과 구조적 폭력의 제약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각국 개개인의 행복과 안녕이 보장되는 생활세계의 공동체
  
-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패러독스를 평화·번영의 한반도·동아시아 신질서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함.
  -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 동아시아 신질서 형성을 지향
  
-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동아시아의 위협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의 과거 100년과 차별화되는 평화·번영의 신시대의 개막을 의미함.
  - 국민과 일상의 평화와 행복이 구현되는 한반도·동아시아 생활세계의 형성을 지향
  
-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와 세계질서 재편기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략인 동시에 국가발전 대전략의 성격을 내재하고 있음.
  -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공동 발전을 도모
  
- 신한반도체제는 현재를 기점으로 도래할 '새로운 100년'의 시간적 범위로 3단계의 구분이 가능함.
  - 단기: 신한반도체제를 주창한 현 정부 임기내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
  - 장기: 광복 100주년(2045년) 통일을 지향한 장기적 정책 목표의 시간적 범위
  - 새로운 100년의 비전: 한반도·동아시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역사관의 시간적 범위

- 신한반도체제 형성의 핵심 공간은 한반도이며, 분단체제의 극복을 동력으로 동아시아 신질서 형성을 견인할 것임.
  -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및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 ▶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 ▶ 동아시아 신질서 형성
  
- 향후 100년은 미래학의 범주이며, 예측의 불확실성을 내재한다는 점에서 정책화의 대상으로서 제약이 있음.
  - 신한반도체제는 초 장기적인 지향점이자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책설계 대상으로 각 단계별 실현가능한 과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할 필요
  
- 신한반도체제는 과거 100년에 대한 성찰에 기반을 둔 새로운 100년의 비전이자 역사관이라는 점에서 정권과 정파를 넘어서는 초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해당함.
  - 신한반도체제에 대한 현 정부의 개념화 및 입구의 형성을 시작으로 차기 정부 및 이후에도 계승할 수 있는 국가전략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 신한반도체제 추진의 정책적 연속성과 연계성 확보에 주력할 필요



### Ⅲ 신한반도체제의 개념

#### 1. 비전

##### □ 수동적 냉전질서에서 능동적 평화질서로의 전환

- 한반도의 지난 100년은 외세의 강점과 분단체제의 형성, 냉전체제 및 관성의 유지로 인한 고비용 구조의 역사이며 강요된 수동적 냉전질서의 특성을 내재함.
- 신한반도체제는 우리 주도의 노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동아시아 신질서의 형성을 견인하는 능동적 평화질서임.

##### □ 평화·번영의 한반도·동아시아 생활세계의 신시대(New Age)

-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패러독스에 기반을 둔 역내 안보적 긴장과 인간안보의 위험이 근본적으로 해소됨.
-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한반도·동아시아 생활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함.

#### 2. 목표

##### □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 신한반도체제의 출발점이며, 한반도·동아시아 신질서 형성의 출발점에 해당함.
- 분단체제의 구조적 해체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의 전제임.

□ 통일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

○ 현 정부 임기 내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함.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화해협력단계 완성과 남북연합의 진입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상태 달성에 주력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함.

□ 동아시아 신질서 견인

○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토대로 역내 '비핵안보레짐'의 형성을 촉진하고, '동아시아지역 안보대화'에서 출발해 다자안보 및 공동안보를 견인함.

○ 평화경제를 통해 한반도·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함.

○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연합(EAU, East Asian Union)의 형성을 지향함.

□ 혁신적 포용국가 완성

○ 분단체제는 한국의 국가와 사회의 포용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함으로써 고비용 구조를 형성했음.

○ 대내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 국제 차원의 포용력을 확대함으로써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실현되는 조화로운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하고, 통일을 위한 내적 역량을 강화함.

### 3. 원칙

□ 우리 주도

○ 한반도의 주체로서 신한반도체제의 형성을 능동적으로 주도함.

□ 국가이익 관철

○ 국민의 평화, 국민의 번영,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를 구현함.

□ 열린 소통

○ 국민 통합 기반, 북한 협력 유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함.

□ 사람 중심

○ 한반도·동아시아 역내 생활세계와 시민사회 개개인의 주체적 역량의 결집을 통해 평화·번영의 행복공동체를 추구함.

## IV 신한반도체제의 추진 구도와 로드맵

### 1. 추진 구도

-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을 양대 축으로 평화·번영의 한반도·동아시아 질서의 형성을 추구함.
  -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선순환 구조
- 평화경제는 신한반도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표로서의 성격을 내재함.
  - 평화와 경제는 선후 관계가 아니며, 양자 간 동적인 선순환구조의 형성에 주안점
- 한반도·동아시아의 상황의 경우, 안보적 긴장이 경제협력의 구조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함.
  - 유럽의 경우 ‘유럽석탄철강공동체’ 등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유럽안보협력기구’에 이르는 평화와 신뢰구축에 진전
  - 한반도·동아시아의 경우 긴밀한 경제적 관계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평화와 안보적 긴장의 제약으로 모순적인 이중구조에 직면
  - 평화의 진전을 통해 번영을 견인하고, 공동 번영으로 평화를 강화하는 추진구도의 설정이 필요
- 평화경제를 동력으로 한반도의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를 형성하고, 동아시아 협력구도로 확장함.
  -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병행함으로써 분단체제의 해소를 지향
  - 신남방·신북방정책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확대, 역내 신안보질서 형성을 견인
  - 경제협력과 평화협력을 양대 축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지향

〈신한반도체제 추진 구도〉



2. 로드맵

□ 신한반도체제 입구 형성 : 2018.4.27.-2022년(현 정부 임기)

-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신한반도체제의 시발점에 해당, 현 정부 임기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및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주력함.
- 비핵화 프로세스의 장기적 속성을 고려하여 북핵 폐기의 불가역적 단계 진입에 주력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상태를 달성함.
-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남북협력과 남북관계를 제도화함.

□ 신한반도체제 가속화 : 2023년-2030년

- 남북 사회·문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단계에 진입함.
- 한반도 분단체제 해소를 동력으로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견인

□ 신한반도체제 형성 : 2031년-2045년

○ 남북연합(2035년) 진입 및 남북통일(2045년)을 통해 신한반도체제를 형성함.

○ 신한반도체제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신질서의 형성을 촉진함.

□ 평화번영의 한반도·동아시아 공동체 : 2046년-2129년

○ 동아시아의 공동 외교·안보와 경제통합의 신시대(New Age) 개막을 견인함.

○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연합(EAU, East Asian Union)을 지향함.

## V 정책적 고려사항

- 신한반도체제는 우리의 새로운 100년을 기획하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 (Korea Initiative) 구현에 주력함.
  -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신한반도체제 형성의 전 과정을 능동적으로 선도
- 신한반도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대전략을 모색함.
  - 분단체제가 해소된 새로운 한반도 및 남북 단일 생활공동체 시대,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평화경제 허브국가의 위상 정립을 위한 발전전략을 도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한 신안보전략을 추진함.
  - 동아시아 역내 안보적 불안정성 상존에 대비,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기로 국방선진화 및 협력적 자주국방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 신한반도체제의 형성을 위한 대내적 동력을 확보함.
  - 국민통합은 신한반도체제 추진력 확보의 필수전제에 해당, 남남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이해

KINU Insight 19-07

---

발 행 일 2019년 9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기획조정실 연구관리팀

홈 페이지 <http://www.kinu.or.kr>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

© 통일연구원, 2019